

‘굿바이 전남도립대’... 마지막 학위수여식 ‘눈길’

390명 졸업생 배출... 호텔조리제빵과 등 36명 표창
내달 목포대와 통합... 미래형 국립대 자리매김 기대

전남도립대학교가 대학 명의로는 마지막 학위수여식을 열고, 390명의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다.

3월 1일 국립목포대학교와의 통합을 앞둔 가운데, 이번 졸업생들은 전남도립대라는 이름으로 학위를 받는 마지막 세대이자 통합대학 출범을 앞둔 전환기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최근 학생문화복지관 아트홀에서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15개 학과에서 전문학사 376명과 전공심화과정 학사 14명 등 총 390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 전체 수석인 강정미 학생(호텔조리제빵과)을 비롯해 총 36명의 학생이 전

남도지사상, 전남도의회 의장상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하며 학업 성취를 인정받았다. 특히 호텔조리제빵과를 비롯해 보건·복지·산업계열 등 지역 수요와 맞닿은 학과 졸업생들이 다수 수상자에 포함되며,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을 강조해 온 전남도립대의 교육 성과를 보여줬다.

윤진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번 졸업생은 전남도립대학교 명의로 학위를 받는 마지막 졸업생인 동시에, 새로운 통합대학의 미래를 증명하는 첫 세대”라며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대학의 성과이자 가능성으로, 지역과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오는 3월 1일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해 새로운 국립대학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을 통해 양 대학은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학사 구조 고도화와 전공 선택권 확대,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립대가 강점을 가져온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과 국립목포대의 연구·학문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전문기술 인재 양성과 학문 기반 인재 육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교육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공급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 측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학생들



전남도립대학교는 최근 학생문화복지관 아트홀에서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15개 학과에서 전문학사 376명과 전공심화과정 학사 14명 등 총 390명이 학위를 받았다.

의 학습권과 졸업 요건, 교직원의 신분과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대

학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을 넘어 국가와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형 국립대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열린 마음으로 소통...공정·투명한 지회 운영”

이재수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취임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시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경숙 중앙회 이사장, 임흥근 중앙협회 회장,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 외 영사, 각 지역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이재수 신임 회장(사진)의 취임식과 이경보 전임 회장의 이임식이 이뤄졌다. 이 신임 회장은 이 전임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경보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

원 입회부터 지회 설립 등 든든한 기반을 함께 만들었고, 이 성과는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가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뤄

보다 나은 광주전남지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수 신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지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끌어준 이경보 회장과 임원분들에게 깊은 존중과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업적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시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과 성과를 충실하게 계승·발전시켜 지회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회의 발전은 회원 모두 참여와 열정이 모일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지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차영수 도의원, ‘도암 소망의집’ 어르신 위문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최근 강진군 도암면에 위치한 요양시설 ‘도암 소망의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도암 소망의집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요양시설로서 어르신 개인의 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 중점을 두는 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됐다. 차영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머무는 공간을 직접 살펴보고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남부소방, 아동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광주 남부소방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지역 아동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소방 임직원들은 시설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 정비와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방관들은 아동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화재 예방 교육과 생활 속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교육·문화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

광주문화재단-송의과기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옥)은 최근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교장 박성우)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 지역 문화산업을 연결하는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콘텐츠 분야 중심 학습 운영 자문,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이다.

광주문화재단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학습 및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는 지역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진로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업 연계를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교육과 문화산업을 잇는 산·학·관 협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view2018@

동구 지산2동, 설 맞이 환경정비 구슬땀

주민자치회·통장단 등과 일제 대청소

광주 동구 지산2동은 최근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복마을 대 청소하는 날’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산2동 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을사랑채운영협의회, 새마을부녀회·통장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투기가 잦은 청소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했다.

신영순 지산2동장은 “주민들이 내 집



광주 동구 지산2동은 최근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복마을 대 청소하는 날’을 진행했다.

앞을 치우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준 덕분에 마을이 한층 깨끗해졌다”며 “앞으로 두 주민들과 협력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산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지매에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장=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2월 22일)

48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60년생 뜻밖에 고귀한 신분의 방문이 있을 것
72년생 머지않아 승진·이동수 있다
84년생 부부싸움 한발 양보하라
96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를 불러온다
51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는 판도다
63년생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불안할 정도
75년생 투기성 있는 일에 손대지 마라
87년생 오랜 숙원이 이뤄진다
99년생 간절히 바라는 일에 큰 기대 마라
54년생 금전 회전이 용이해지는 운
66년생 소원이 이뤄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78년생 뇌물 조심 작은 것이라도 돌려주라
90년생 연인에게 말을 조심하라
57년생 환경 극복하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라
69년생 막연히 비교하지 마라
81년생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뤄진다
93년생 실속이 없으니 빨리 청산하라

49년생 건강 검진하라
61년생 숙원 사업이 드디어 해결되리라
73년생 철저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85년생 가족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삼가야
97년생 후배와 다투면 다칠 수 있다
52년생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64년생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76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참으라
88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해야 득이다
55년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마라
67년생 직장내 구설수를 조심하라
79년생 중일 노력해도 얻어지는 보람이 없다
91년생 구설수로 다룰 수 있으니 말조심하라
58년생 자녀일에 불화가 생겨 갈등 겪는 날
70년생 무리한 계획이 아니면 성공한다
82년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리라
94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뵙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
62년생 자녀의 혼인이 무리역을 운
74년생 이익을 앞에 두고 의리를 생각하라
86년생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이익
98년생 혼선이 빚어질수도 있다
53년생 스트레스 사라지고 금전운 트인다
65년생 가까운 사람일수록 약속을 잊지마라
77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89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다
56년생 숙단은 금물이다.
68년생 가닥이 잡히면 즉시 속도를 내려
80년생 금전 문제로 고통이 따르리라
92년생 숨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가 됐다
59년생 제3자의 일에 관여하지 않게 좋다
71년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산이 먼저다
83년생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95년생 기운이 길하니 실행하면 성공한다